

대출 문턱 높아지자 지역 자영업자들 '2금융권으로'

한은, 2020금융기관 현황... 시중은행 기피 현상 타 지자체보다 주담대 비중 낮고 신용대출 높아져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이 막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2 금융권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타 지역을 상회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박지섭 한국은행 기획금융팀 과장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수신 비중은 광주 36.8%, 전남 50.0%로 조사됐다. 이는 타 광역시(30.0%)와 타 광역도(39.8%)보다 높은 수치다. 여신 비중도 광주 29.9%, 전남 49.6%로 타지역을 웃돌았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특정 지역 주민(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 긴

밀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가리킨다.

가계대출은 광주·전남 모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업대출은 광주는 타 광역시를 소폭 상회하고 전남은 큰 폭 상회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9.6%, 전남 40.2%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광주 30.7%, 전남 33.8%로 예금은행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점포수와 농림어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 금융기관 점포 비중(2020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광주 14.6%, 전남 24.6%



오비맥주 광주지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오비맥주 광주지점 이윤섭 지점장은 10일 남구청을 방문, 관내 취약계층 및 돌봄이웃을 위한 희망주책 리모델링 사업비 200만원을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오비맥주 제공

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점포수(2020년말 기준)는 광주 7.9개, 전남 15.6개로 집계됐다. 광주는 광역시중 가장 많았고, 전남은 제주(15.9개)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은 인

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점포수는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2015년 292개→2020년 288개) 인구 대비 점포수는 증가했다.

수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으로 광주 42.6%, 전남 72.2%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금융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여신 역시 상호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43.3%, 전남 68.7%를 차지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낮고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담보대출 규모, 높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 등에 따라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섭 과장은 "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 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대출 등에 연체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 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예상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전일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취임

1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2022년 임원 보임 및 점장 이동' 발표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을 비롯한 지역 아울렛 점장이 신규 부임했다. ▶관련명단 17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에는 전일호 상무(47)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에는 오재철 점장(48), 남약점에는 김광희 점장(49)이 부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으로 신규 부임한 전일호 상무는 충남 계룡 출신으로, 2000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쳤다.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롯데백화점 본점 영업총괄팀장, 수도권지역 영업기획팀장, 상품본부 식품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전임 점장들도 각각 새로운 자리로 보임받아 이동했다.



나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롯데슈퍼 기획지원 부문장으로, 김병 일 롯데아울렛 남약점장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장으로, 양남군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장은 롯데를 군산점장으로 영전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 12월 낙찰가율 95%... 전국 1위

전국 아파트 낙찰률 42.7% 연중 최저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이 33.5%로 전월(38.2%) 대비 4.7%p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78.5%로 전월(81.9%) 대비 3.4%p 하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낙찰가율 90%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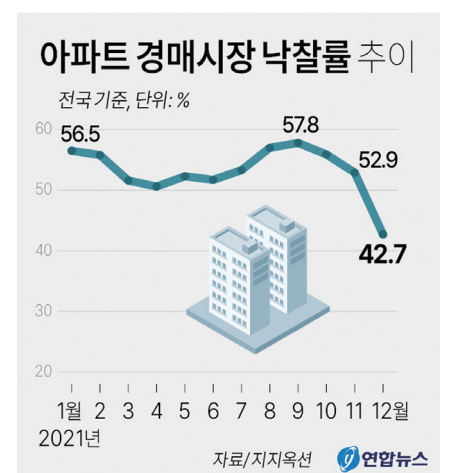
광주(95.2%)는 특히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에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용도 전체의 낙찰가율을 밀어 올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작년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전월(107.5%)보다 5.0%p 하락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낙찰가율 100%를 넘긴 지역으로 11월부터 두달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65.3%, 낙찰가율은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진행건수가 적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소액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여러채가 경매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 광주지역 아파트 낙찰가율(106.9%)은 전월(109.1%)보다 2.2%p 하락했지만, 지방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100%대를 유지했다. 전남(90.2%)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45건으로, 이 가운데 낙찰 건수는 531건(낙찰률 42.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연중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전달인 11월(52.9%) 대비 10.2%포인트(p)나 하락



했다.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104.2%에서 100.6%로 낮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12월 5.1명으로 연중 가장 적었다. /이연수 기자

아파트관리 편람 배부 '호응'

전아연광주시회, 감사업무 매뉴얼 등 수록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회장 한재용)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아파트관리 편람'을 회원 단지에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전아연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시회는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경된 법령과 제도 내용을 정리한 '아파트관리 편람'을 1,000부 제작해 지난해 말부터 각 단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책자를 받아본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은 간단하게 정리된 편람에 대해 큰 호응을

나타냈다.

책자에는 ▲대표회의 역할과 책임·확인사항 ▲의결사항·회의 안건 및 진행요령 ▲동별대표 선거와 해임절차 ▲감사업무 매뉴얼 및 주요 확인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공사 절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하차·부실공사 대응 방안 ▲노무관련 법령 및 계약서 ▲관리규약에 추가할 주요 조항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가 알기 쉽게 편집됐다.

또한 ▲비리 사전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전산화 방안 ▲시설물 수명 연장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수립방안 ▲대형공사 진행시 사전계획과 시방서 작성,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해 각종 의혹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재용 회장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문인 주택관리사를 의무 배치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반 관리행정 처리와 서식, 관리비 산정방법, 각종 공사와 용역 등 계약과 관련한 내역을 표준화하지 못한 곳이 있어 책자를 제작·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리업무를 표준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선진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착한 임대료' 6개월 연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하이테크센터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약 40개사에 3억2,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에 따라, 하이테크센터 내 임차기업 35개사는 6개월간 7,200만원을 감면받는 다. /김혜린 기자

aT, 수산식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바우처 사업 참여업체 16일까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수산물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2년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은 중소수산물 수출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해외시장 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유망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에 대한 바우처를 기업당 5,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수산수출부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현재의 집을 찌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